



## 프로 9년차 '만년 유망주' 인생 역전 홈런

### ■ 생애 첫 MVP 받은 김상현

'김상현, 2009시즌의 별이 되다.'  
 KIA 타이거즈의 김상현이 2009시즌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김상현은 27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9 프로야구 최우수선수 시상식에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기자단 투표결과 전체 90표중 79표를 획득해 '왕중왕'에 올랐다.  
 김상현과 경쟁을 벌였던 최다안타 1위 김현수(두산)는 7표, 수위타자 박용택(LG)과 방어율왕 김광현(SK)은 각각 3표와 1표를 얻는데 그쳤다.

타점을 갈아치운 김상현은 장타율(0.632) 부문까지 독식하며 타격 3관왕에 올랐다. 득점권 타율도 0.403으로 가장 높았다.  
 최희섭과 공포의 타선을 형성한 김상현은 팀의 정규시즌 1위를 이끌며 12년만의 한국시리즈 우승의 발판을 놓은 공신이기도 했다.  
 한국시리즈에서는 23타수 5안타(1홈런), 0.271의 타율로 6타점을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몸을 사리지 않는 슬라이딩까지 선보이며 투혼을 발휘했다. 김상현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MVP로 뽑아주셔서 감사하다. 올해 야구 선수로서 하고 싶은 목표를 다 이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계기가 더 많기에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

### "2군 선수들 나를 보고 희망 가졌으면..."

KIA는 지난 1994년 이종범 이후 15년 만에 MVP를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다. 김상현은 이번 수상으로 김성현(선동열 4회), 이종범에 이어 네 번째로 타이거즈 출신의 MVP가 됐다.  
 또 지난 2004년 배영수(삼성)를 시작으로 지난해 김광현까지 투수들 품에 안겼던 MVP 트로피는 6년만에 타자의 차지가 됐다.  
 투표 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자신의 수상을 자신할 정도로 올 시즌 김상현의 활약은 눈부셨다. LG에서 친정 KIA로 돌아오자마자 만루포를 쏘아올렸던 김상현은 8월 한 달 15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홈런왕(36개)에 등극했다. 127타점을 쓸어모으며 10년만에 팀내 최다타점(홍현우 111

표)를 기록하며 MVP를 받았다. 김상현은 "유망주로 평가를 받았지만 자신감이 있었다. 2군 선수들이 나를 보고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지난 무명 시절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한편 24년만의 타이거즈 신인왕에 도전했던 안치홍은 두산의 이용찬에게 신인왕 자리를 내줬다. 신인왕 1차 투표에서 이용찬이 전체 90표 중 42표, 안치홍이 26표를 얻었으나 둘 다 과반을 넘지 못해 현장 결선투표를 진행했다. 결선투표에서 안치홍은 19표를 얻는데 그쳐 50표를 획득한 이용찬에게 신인왕 트로피를 넘겨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 역대 MVP & 신인왕

연도	MVP	신인왕
1982	박철순(OB)	-
1983	이만수(삼성)	박종훈(OB)
1984	최동원(롯데)	윤석민(OB)
1985	김성현(해태)	이승철(해태)
1986	선동열(해태)	김건우(MBC)
1987	장효조(삼성)	이정훈(빙그레)
1988	김성현(해태)	이용철(MBC)
1989	선동열(해태)	박정현(태평양)
1990	선동열(해태)	김동수(LG)
1991	장중훈(빙그레)	조규제(쌍방울)
1992	장중훈(빙그레)	염중석(롯데)
1993	김성래(삼성)	안준혁(삼성)
1994	이종범(해태)	유지현(LG)
1995	김상호(OB)	이동수(삼성)
1996	구대성(한화)	박재홍(현대)
1997	이승엽(삼성)	이병규(LG)
1998	우즈(OB)	김수경(현대)
1999	이승엽(삼성)	홍성흔(두산)
2000	박경완(현대)	이승호(SK)
2001	이승엽(삼성)	김태균(한화)
2002	이승엽(삼성)	조용준(현대)
2003	이승엽(삼성)	이동혁(현대)
2004	배영수(삼성)	오재영(현대)
2005	손민현(롯데)	오승환(삼성)
2006	류현진(한화)	류현진(한화)
2007	리오스(두산)	임태훈(두산)
2008	김광현(SK)	최형우(삼성)
2009	김상현(KIA)	이용찬(두산)

### ■ 프로야구 부문별 수상자

〈1군〉(투수부문)  
 ▲최다 승리 투수상(3명) : KIA 로페즈, 롯데 조정훈, 삼성 윤성환(14승) ▲평균자책 1위 및 승률 1위 투수상 : SK 김광현(2.81, 0.857) ▲최다세이브 투수상(2명) : 두산 이용찬, 롯데 에킨스(26세이브) ▲최다 탈삼진상 : 한화 류현진(188개) ▲최다 홈드루 : 삼성 권혁(21홈드루)  
 (타자부문)  
 ▲수위타자상 : LG 박용택(0.372) ▲최다 홈런, 최다타점, 최고장타율상 : KIA 김상현(36홈런, 127타점, 0.632) ▲최다득점상(2명) : SK 정근우, KIA 최희섭(98득점) ▲최다안타상 : 두산 김현수(172개) ▲최다도루상 : LG 이대형(64도루) ▲최고출루율상 : LG 페타지니(0.468)  
 〈2군〉(투수부문)  
 ▲북부리그 최다승 : 상무 장진용(10승1패) ▲북부리그 평균자책 1위 : 상무 김희걸(2.19) ▲남부리그 최다승 : 삼성 이우선(9승2패) ▲남부리그 평균자책 1위 : 삼성 광동훈(3.46)  
 (타자부문)  
 ▲북부리그 수위타자상 : 상무 강명규(0.382) ▲북부리그 최다홈런상 : 경찰청 조영훈(24홈런) ▲북부리그 최다득점타상 : 상무 유한준(92타점) ▲남부리그 수위타자, 최다홈런, 최다득점타상 : 롯데 오장훈(0.313, 14홈런, 71타점)  
 〈심판부문〉  
 ▲2009 프로야구 최우수 심판원 : 이영재 심판위원

### 이용규·윤석민 군사 훈련

### 내달 14일 한·일챔피언전 불참

KIA 타이거즈 정예요원들이 내달 14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한일챔피언시리즈에 불참한다.  
 마운드의 기동 로페즈와 구름스 등 두 명은 한국시리즈가 끝난 직후인 25일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분간 미국에 머물 예정이라 두 선수는 한일챔피언시리즈에 불참한다.  
 이용규와 윤석민은 군사훈련 때문에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지 못한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이용규와 윤석민은 11월5일 논산훈련소에 입소해 4주간 기본군사훈련을 받게 된다.  
 한편 지난 4월 복사병 골절로 긴 고정수술을 받았던 이용규는 28일 서울 을지병원에서 고정관 제거 수술을 받는다. 이용규는 수술 후 일주일 가량 입원 치료를 받은 뒤 논산에 입소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타고난 파워에 연습 벌레인 '성실맨'

### ■ 코치들이 본 김상현 공수주

◇공격(황병일 타격코치)  
 타고난 파워가 돋보이는 선수다. 문제가 됐던 변화구 대처능력도 좋아졌고, 올 시즌 타격에 눈을 떴다. 홈런 타자로서의 적극성도 뛰어나다. 그만큼 선구안과는 상충되기도 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성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2009시즌 김상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본다.  
 몸쪽 공에 대처하는 능력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올 시즌에도 충분히 훌륭했지만 몸쪽 대처능력에 중점을 두고 연습을 한다면 최고의 타자로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수비(김동재 수비코치)  
 수비가 약점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뛰어나고 실수 후에도 주눅들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등 정신력이 뛰어나다. 올 시즌 실책부문 1위를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한 훈련을

스스로 요청할 정도로 성실한 선수이기도 하다. 한국시리즈 1차전 첫 타구에서 실책을 기록한 이후 남은 경기에서 완벽한 수비를 보여줬을 정도로 자신감 있고, 강한 선수다.  
 바운드 타구에 반응하는 감각과 수비시 손놀림에 대한 부분을 보완 한다면 내년 시즌 수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주루(최태원 주루코치)  
 한루 라도 더 진투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적극적인 선수로 주루코치들이 선호하는 선수다. 주루로 승부를 하는 선수가 아니지만 4·5번을 맡는 타자 중에서 가장 해이크 모션을 잘 취하는 선수라고 생각한다. 집중력 있는 모습도 돋보인다. 아직 현장 경험이 많지 않은 게 취약점이다. 상황에 따른 판단은 경험이 쌓이면 늘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 적극적이다 보니 가끔 오버하는 경향도 있지만 경험이 쌓이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다듬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올스타전·퓨처스·KS·정규리그 싸늘이

### ■ KIA, MVP 그랜드슬램

12년만에 한국시리즈 우승기를 되찾은 KIA 타이거즈가 MVP 트로피까지 싸늘이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타격 3관왕 김상현이 27일 2009프로야구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며 15년만에 타이거즈 출신의 MVP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 24년만의 신인왕 배출에는 실패했지만 올 시즌 KIA는 굵직한 상을 독차지하며 2009년을 '명가재간'의 원년으로 삼았다.  
 신호탄은 2군에서 먼저 쏘아올렸다. 외야수 이명환은 지난 7월 18일 춘천 의암야구장에서 열린 2군 퓨처스 올스타전에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뼈가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MVP를 차지했다.  
 막내 안치홍도 큰 일을 냈다. 안치홍은 7월25일 광주에서 열린 프로야구 올스타전에서 서군 최다 득표와 고졸 신인 첫 올스타의 기쁨을 누리며 이어 홈런포까지 쏘아올렸다. 올스

타전 최연소 홈런 기록을 갈아치운 '겉없는 신인'의 한 방이자 최연소 올스타 MVP를 확정짓는 홈런포였다. 1·2군 올스타전 MVP의 보증수표였던 홈런은 한국시리즈에서도 터져 나왔다.  
 프로 2년차 거포 나지완은 7차전까지 이어진 한국시리즈 대접전에서 12년만의 우승을 확정짓는 구바이 홈런의 주인공이 됐다. 앞선 6회에도 추격을 알리는 투런 포를 쏘아올렸던 나지완은 강렬한 홈런 두 방으로 강력한 MVP 후보 로페즈를 제압하고 가장 극적인 한국시리즈 MVP가 됐다.  
 MVP 행진의 마지막은 김상현이 장식했다. KIA의 거침없는 행보를 주도했던 김상현은 예상대로 2009 시즌 MVP의 자리에 오르면서 프로야구 첫 MVP 그랜드 슬램을 완성했다.  
 한 해 1군 MVP를 모두 석권한 경우는 1984년 롯데, 1986년 해태가 있다. 1988년에도 김성현, 문희수, 한대회를 앞세운 해태가 MVP를 독차지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09 프로야구를 빛낸 별들

27일 오후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2009 C.마리야구 프로야구 최우수선수(MVP)와 최우수 신인선수 선정 및 각 부문별 시상식'에서 KIA 타이거즈 김상현(아랫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최우수선수상을 두산 베어스 이용찬이 최우수 신인선수상(아랫줄 왼쪽에서 여섯번째)을 수상한 가운데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